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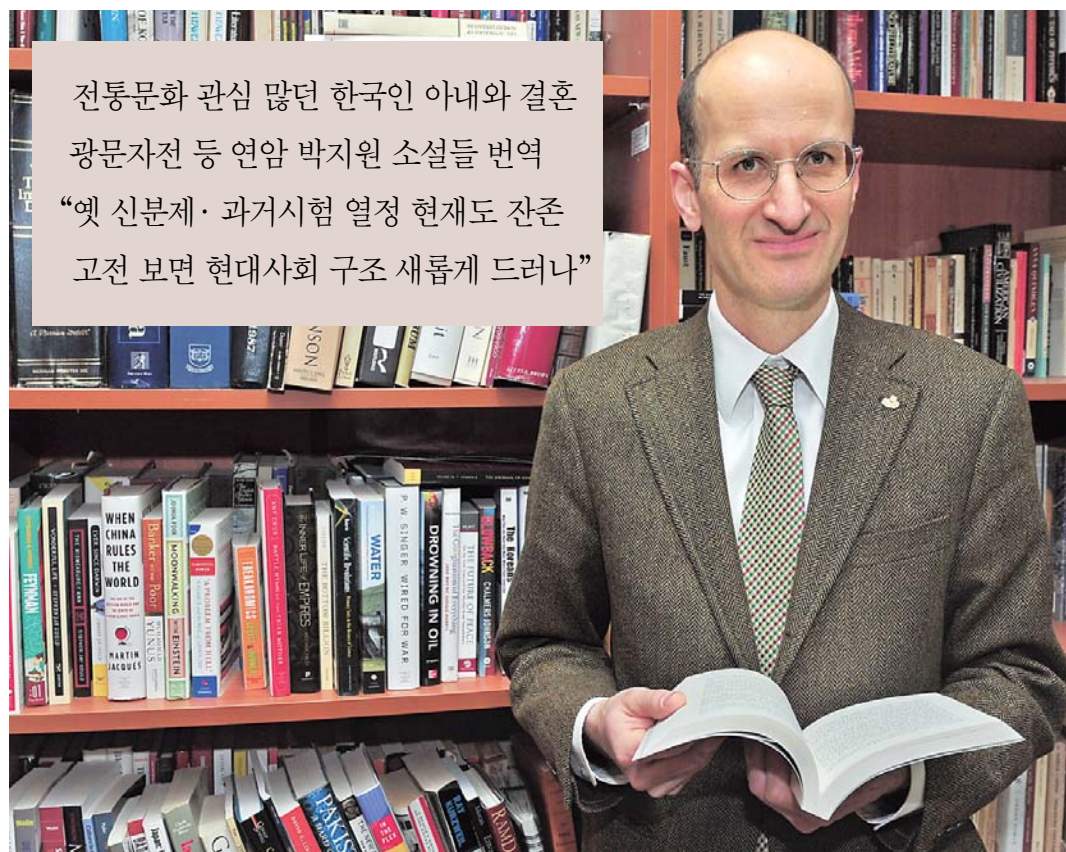
한국 고전문학에 빠진 '푸른 눈의 선비'

“선비정신 살려 세계문화 품는 큰나라 돼야”

▲1964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출생 ▲1985년 국립대만대 중문과 교환학생 ▲1987년 예일대 중문과 졸업(전체 우등) ▲1991년 도쿄대 대학원 졸업(비교문화학 석사) ▲1995년 서울대 중문과 대학원연구생 ▲1998년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동아시아언어문명학 박사) ▲2007년 우송대 숭보리지 국제경영학부 교수 ▲2011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이만열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교양전문대학)에서 한국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이만열(48) 교수. 1964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본명은 이매뉴얼 파스트라이치(Emanuel Pastreich). '만열'이라는 이름은 한국인 장인이 원래 이름과 비슷한 발음을 골라 지어준 것. 지금은 다산 정약옹의 소설을 번역하고 한국인 아내와 두 자녀까지 두고 있지만 한국과의 인연이 처음부터 각별했던 건 아니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불편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불편함은 어느새 친숙함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조선 실학의 선구자인 정약옹과 연암 박지원을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선비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변했다. 스스로 '미국인이자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그는 "한국이 선비정신을 살리고, '한'이란 이름에 걸맞게 '큰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큰 나라는 영토와 인구가 아니라 세계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큰 나라다. 이 교수는 "세계 모든 문화를 품으면서 한국의 전통을 발전시키되 민족이란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통문화 관심 많던 한국인 아내와 결혼
광문자전 등 연암 박지원 소설들 번역
“옛 신분제·과거시험 열정 현재도 잔존
고전 보면 현대사회 구조 새롭게 드러나”

◆한국문화, 결가지에서 학문적 연구 중심으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한국땅에서 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버지는 유럽 고전음악을 전공했고 어머니는 프랑스어 교사였다. 이렇듯 유럽문화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그는 대학 전공 역시 일찌감치 프랑스어 문학과로 결정했다. 1984년, 하버드대를 포기하고 예일대에 합격한 다음 프랑스 비교문학을 수강했다. "유럽의 문화만이 지식의 전부였고, 그것만이 진정한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곧 회의가 찾아왔다. 위인을 알 수 없는 긴 슬럼프에 빠지면서 방향을 거둬했다. 그때 접한 것이 중국 문화이었다. 두 눈이 번쩍 뜨이고 머릿속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그 길로 곧장 중국문학 전공 교수에게 달려가 당시(唐詩)를 배웠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한자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중국 고전문학 세미나에 참석했다. 유럽의 위인이 아닌 사마광, 왕안석 등 중국의 영웅을 삶의 모델로 삼았다. 대만국립대 교환학생을 거쳐 도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때만 해도 한국어는 중국과 일본문학을 이해하는 징검다리엔 지나지 않았다. 1995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연구생으로 방문했으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김치 먹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직장은?" "결혼했어요?" 한국인들은 초면인데도 결코 귀찮은 질문들을 거리낌없이 던졌다. 그게 한국에 대해 품은 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장을 담그듯 시일이 지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그의 감정은 불편함에서 친숙함으로, 친숙함에서 애정으로 바뀌었다. 일본과 중국을 이해하는 결가지에 불과했던 한국문화가 이제는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세계의 핵심으로 성장하게 된 것. 1996년에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를 좋아하게 된 까닭이 독특하다. "아내는 다른 한국인들과 달리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한국인 친구들도 몇몇 사귀었다. 그렇게 한국을 알아가고 즐기기 시작했다.

◆파격적 한국 고전문학에 반하다
1998년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언어문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의 첫 전임 교직원 자리는 2007년 우송대 숭보리지 국제경영학부에서 얻었다.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이사장의 제안을 받고 리더십을 가르치기로 했다. 이 교수는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을 강의했다. "주원장이 길을 지나다가 근처 무덤에 적군의 어머니가 묻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굶어서 개처럼 문했다는 것이다. 주원장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적의 어머니가 묻혀 있다. 이를 해치는 자는 배어 죽일 것이다.'" 세계화가 심화할수록 경쟁은 더욱 가속화한다. 리더는 자기편만 끌어안을 수는 없다. 주원장처럼 반대세력조차 포용할 수 있어야 경쟁사회에서 지도력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 교수는 인문학이 그런 리더십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후 2011년 인문교양을 전담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새삼 인문학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다. 장자를 인용했다. "쉬운 것이 올바른 것이다. 올바르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쉽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게 올바른 바르다." 인문적 교양이란 쉽고 올바른 길이라고 역설한다.

이 교수는 요즘 연암 박지원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해에는 그의 단편 한문소설들을 번역해 출간까지 했다. 양반전, 민옹전, 광문자전 등을 번역서에 수록했다. 거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광문자전에서 무릎을 탁 칠 정도였다. "현대소설도 거지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힘든데, 하물며 이때는. 연암의 상상력은 현재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 교수는 그 같은 파격에 감탄했다. 이것만으로도 현대인들이 한국의 고전을 다시

읽어야 할 이유가 된다. 거기다 인문학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 "인간 본성에는 변치 않는 부분이 있다. 고전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현대사회의 구조가 새롭게 드러나 보일 수 있다." 옛날의 신분제와 현대의 사회계층, 과거시험을 향한 열정과 대학입학 열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연암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었다.

◆하루키와 요요마, 그리고 현악에 이르기까지 이 교수는 스스로 "사교적이지는 않다"고 고백했다. 말도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삶 곳곳마다 사람과의 만남이 그의 내면을 더욱 깊게 했다. 1993년 무렵 하버드 대학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찾아왔다. 우연히 하루키의 차를 대신 주차해 준 일을 계기로 그와 친해지게 됐다. 이 교수는 그를 통해 소설과 학문의 차이를 배웠다. "작가는 소설을 쓰려고 많은 관찰을 한 후 가상의 세계를 창조한다. 반면 학문은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하루키는 날카로운 관찰자였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첼리스트 요요마도 이 교수의 친구다. 특히 유학을 공부하는 서양인과 첼로를 전공하는 동양인으로, 서로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마음을 터놓는 사이다. 한번은 요요마가 "창의적인 글을 쓰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그에게 이같이 위로했다. "당신이 중국어와 일본어, 한국어를 배우는 건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커다란 비전에서 나온 것이다. 비전이야말로 창의성의 가장 원초적 형태다."

예일대 동문인 현각 스님은 그가 최근 책을 펴내자 추천의 말까지 보내왔다. 각각 불교와 유교로 걸어가자는 길은 다르나 융합정신하는 모습에 서로 감응한 때문이다. 2009년 경상북도 봉암사에서 처음 본 이후 두 번째 만남에서 현각 스님은 그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다. "지금 목연수행 중. 나 대신 이 편지를 부쳐 주세요." 이 교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동문이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될 것"이라고 웃었다.

◆한국인 이만열의 따듯한 충고
책과 사람을 통해 융합정신하는 이 교수가 한국인들에게 하는 직언은 날카롭다. 거북스리우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바탕에 섬세한 관찰력과 애정이 느껴진다. "한국 대학생들, 한국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꼭 읽어도 실용서만 읽는다. 성찰이 부족하다." "한국 대학생들이 복도나 거리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웃고 농담하는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도망치려는 태도가 보인다"고 일갈했다.

한국 사회의 폐쇄성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비판했다. "성공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도 국제적 관점에서 보는 감각이 없다. 싸이월드나 네이버가 단적인 예다."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에 뒤처지고 네이버에 영어만, 중국어만 없는 것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뛰쳐나왔던 수백만 명의 붉은 악마도 지나친 애국주의와 비조직적·일시적 에너지의 분출이란 측면이 보인다고 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윈철하지 않을 한국인들은 없을 것이다. "푸른 눈의 선비"가 하는 진심 어린 충고에 이제 한국인이 화답할 때다.

박현준 기자, 사진=김준범 기자

www.powerten.co.kr

당신의 에너지 드링크 - 「파워텐」

운전을 할 때 졸음과 싸우는 당신. 이젠 졸음을 날리고 에너지를 채우세요. 10가지 성분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 「파워텐」과 함께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파워텐의 10가지 성분

- 1. 나이아신아미드 2. 엽산 3. 티아민 4. 리보틴 5. 인오신 6. 시아노코발린 7. 카르니틴 8. 티우린 9. 주석산염 10. 과립니우슬 11. 동결건조로일체리

명문제약(주) www.mmpharm.co.kr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